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586호 | 2019년 5월 22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 www.nars.go.kr

국회대표단 방중(訪中) 의원외교의 주요 성과와 향후과제

김 예 경*

1. 들어가며

2019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특히 이번 국회대표단에는 지난 5월 2일 출범한 ‘의회외교포럼’의 중국대표단(공동 단장: 박병석, 원유철 의원)이 방문단에 포함되어 중국을 시작으로 한 주변국들과의 의회 외교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¹⁾

이번 국회대표단의 방중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신임 양 의회 정상 간 첫 만남을 통한 양국 의회 교류·협력관계의 복원, 둘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의 모멘텀 마련, 셋째, 경제·통상, 환경 분야 등 양국 간 공통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회대표단은 리잔수(栗战书)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

장과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양제츠(杨洁篪) 정치국원 겸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지도부와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방중은 의회차원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관계 회복방안을 강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중·일·러 4강 의회 정상외교’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²⁾

본 보고서는 이번 국회대표단의 방중 의원외교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정리해보고, 한중 의회 간 지속적인 교류 및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회대표단 방중(訪中) 주요 일정

5월 6일 방중 첫날 국회대표단은 양제츠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한인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방중 둘째 날인 5월 7일 차하얼학회(察哈尔

1) ‘의회외교포럼’은 중진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별·지역별로 외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 2019년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국회대표단은 ‘4강의회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한 바 있으며, 중국은 두 번째 방문지에 해당한다.

学会)³⁾와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간에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베이징대학교에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한중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국국가화원(中国国家画院)을 방문해 서예교류관련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간의 한중 의회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중국 측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중국 역할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방중 마지막 날인 5월 8일 국회대표단은 베이징 주재 특파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왕치산 국가 부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한중 교류 협력의 조속한 복원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전략적 소통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왕동밍(王东明) 전인대 상무부위원장과의 만남을 끝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3. 방중(訪中) 의원외교의 주요 성과

(1) 의회 최고위급 교류 재개 및 활성화

2014년 12월 이태 국회의장의 중국 공식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국회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한중 의회 최고위급 교류의 재개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차하얼학회는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싱크탱크로 2009년 설립되었다. 회장은 한팡밍(韩方明) 제13대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이다.

이번 방중에서 의회 최고위급 간에 한중관계의 완전한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협력 강화, 경제통상 협력 확대, 민간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 미세먼지 등 초국경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 국방, 환경, 산업·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내 대표적인 중국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는 다수의 의원들이 대표단에 포함되어 관련 분야 논의에 있어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표] 국회 대표단의 구성

구분	성명(정당)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환노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박 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울러 이번 방중 성과의 지속성을 위해 대표단은 시진핑 국가주석,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치산 국가부주석 등 정부 및 의회 지도자의 한국 방문을 요청한 바도 있어 양국 정부 및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의회 공공외교 활동 강화

국회대표단은 중국 방문 중에 중국의 대표적인 민간싱크탱크로 알려진 ‘차하얼학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한판밍 회장을 비롯해 뤼펑딩(吕凤鼎), 선궈팡(沈国放), 자칭궈(贾庆国) 등 오랫동안 외교업무에 종사했거나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차하얼학회 국제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베이징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으며, 강연을 통해 한중관계의 나아갈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베이징대학 강연은 한중관계의 미래 주역이 될 중국 청년학생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 중국 의회 공공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 의회 간 협력 확대

국회대표단은 북미 간 신뢰구축과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 측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중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중앙외사공작위원회 위원),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촉진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한중 고위급간 상호 전략적 소통을 긴밀히 하는 데 한국 국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상당한 성과로 보인다.

(4) 미세먼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의회 간 실질적 협력 강화 계기

국회대표단의 이번 중국 방문은 경제통상 및 환경 분야에서 한중 의회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해서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양국 간 민감한 사안인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문제는 초국경적 문제인 만큼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미세먼지의 생성원인, 대기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과 양국의 미세먼지 관련 법률을 상호 교환 및 검토하여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4. 향후 과제

이번 국회대표단의 방중외교는 한중 양국 간 긴밀한 의회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실질적 협력을 가속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방중외교의 성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대표단의 방중을 계기로 국회의장의 대화상대인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중 의회 간 최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 상임위원회와 중국 전인대 전문위원회 간 교류를 제도화하여 한중 의회 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⁴⁾ 우선적으로 양국 간의 큰 현안인 미세먼지 및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된 위원회 간의 정기교류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한중 의회 간 교류체계 다각화 및 대 중국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학계 및 전문가 견해는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정치국 집단학습’⁵⁾을 통해 이들의 견해를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5트랙 전략대화를 국회차원에서도 실시하는 것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략대화나 포럼의 형식을 통해 한중 양국이 긴밀

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 체계는 현재 한중 의회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및 한중의원외교협회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

한편 의회공공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 간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서예 교류, 청년 교환프로그램, 한중 공공외교 포럼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문교류 영역을 포함한 정치·경제 등 제 분야에서 양국관계가 전면적인 복원을 촉진·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국회차원에서도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는 양국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축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국의 핵심지도자 가운데는 지방근무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예컨대 시진핑 국가주석은 푸젠성(福建省), 저장성(浙江省), 상하이시(上海市)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허베이성(河北省), 산시성(陝西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꾸이저우성(貴州省) 등 지방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중앙정치무대로 진출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도 중국 지방정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회지도자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4)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전문위원회는 10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5) 정치국 집단학습은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중국 지도부가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도부 간 의견을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6) 현재 한중 의회 간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간 교류, 국회예산정책처와 전인대 예산정책위원회 간 교류 등이 가동 중에 있다.